

☞ 오늘의 말씀-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렘 18:6).



영천시 북안면 원당리에 피어있는 부추꽃이다.(9월6일)
모든 식물은 꽃을 낸다. 모든 생명체는 존재 자체가 아름답다.

예배처소
공동예배
간식 / 친교
교우모임
목사
홈페이지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54길 18 (대방동) 여성플라자
4:00~5:00
5:00~5:20
5:20~6:20
정용섭 (010-8577-1227, 053-856-1227), 박재진, 이춘우
<http://dabia.net/x/churchs>

이번주는
4층 시청각실

개회예전

예배의 부름 ... 목사

우리는 복잡하고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에 파묻혀서 살아갑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고, 그것으로 삶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일상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소중하기는 하지만 곧 지나간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찬송 68장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 다 함께

*공동기도 ... 다 함께

홀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지금 우리는 한마음과 한목소리로 공동기도를 드립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얼마 가지 않아 낡고 병들고, 그리고 소멸할 수밖에 없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히 존재하시므로써 유한한 피조물을 세상에 내어주고 유지하며 받아들이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만 생명을 얻는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사람은 단순히 겉모양만 바꿀 수 있을 뿐이지 생명 자체에는 손을 댈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소유와 업적을 자랑한다 해도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결국 죽어야 한다는 사실이 이를 확증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근원이신 하나님만을 오늘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지금, 이 순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전체 삶이, 그리고 우리의 전체 실존과 전체 운명이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에 휩싸이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찬송 새로운 예배찬송 469장(거룩송) ... 다 함께



***사죄기도 ... 다 함께**

목사: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자신과 세상의 죄를 고백합니다. 흠에서 왔으니 흠으로 돌아가야 할 존재들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소유하고, 소비하는 데만 정신을 쏟아붓고 살았습니다.

회중: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목사: 오늘 이 세상은 생명, 그 현상, 그 활동이 모두 창조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고 삽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세상의 생명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까지 서로 소외시키고 있습니다.

회중: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목사: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는 풍요의 신(神)인 바알 신앙에 굴복한 적이 많았습니다. 성령이 아니라 세상의 요구에만 민첩하게 반응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아멘!

***침묵기도 ...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다 함께**

***사죄선포 ... 목사**

목사: 이제 저는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끝없는 긍휼과 자비, 그리고 교회의 2천 년 예배 전통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참회의 기도로 아뢰 모든 것은 하나님의 기억에서 사라졌으니, 이제 그 일로 두려워하지 말고, 이웃의 잘못도 용서하십시오.

함께: 아멘!

***영광찬송 『한국교회와 리마 예식서』에서 ... 다 함께**

감격하여이장민



영 - 광 을 주 님 게 영 - 광 을 주 님 게
높 이 계 신 주 님 게 영 광 -


***평화인사 ... 다 함께**

목사: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회중: 또한 목사님과도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찬송 새로운 예배 찬송 120장 (성부 하나님을 찬양하라) ... 다 함께

Sing ye praises to the Father(웨일즈), Robert B.Y. Scott



1.성 부 하 나 님 을 찬 양 하 라 그 의 이 름 찬- 양- 해
2.모 든 만 물 들 이 찬 양 하 네 산 도 들 도 찬- 양- 해
3.우 리 주 님 께 서 부 르 시 니 기 뻔 하 며 찬- 양- 해
성 부 하 나 님 을 찬 양 하 라 삼 위 일 체 되- 신- 주
어 둔 밤 하 늘 의 달 과 별 이 반 짝 이 며 찬- 양- 해
주 님 께 서 우 월 위 로 하 니 기 뻔 하 며 감- 사- 해
이 세 상 을 지 으 시 고 진 리- 의 길 보 이 사
사 시- 사 철 아 름 답 게 창 조- 주 를 찬 양 해
성 부- 성 자 성 령 이 신 삼 위- 일 체 하 나 님
만 물 축- 복- 하 시 었 네 구 원 의 길 주- 셉- 네
축 복 속- 에- 자 라 나 는 생 명 들 이 주- 찬- 양
창 조 의- 주- 사 랑 의 주 거 록 하 심 찬- 양- 해

말 씬 예 전

설교전기도 ... 다 함께

태초에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세계 교회력의 순서에 따라서 주어진 본문을 읽는 이와 설교하는 이와 듣는 이 모두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 원합니다. 세상의 온갖 소리에 무뎠진 우리 영혼의 귀를 치료하시어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살아가도록 이끌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1독서 예레미야 18: 1-11 ... 윤동희 집사

성서교독 시편 139: 1-6, 13-18 (새로운 예배시편 번역) ... 다 함께

하나님은 저를보고 세밀하게 살피시며 주님께선 저를한히 꿰뚫어서 아십니다
-제가앉아 있을때나 서서있을 때에라도 주님께선 멀리서도 제생각을 아십니다
제가길을 갈때에나 드러누워 있을때나 주님께선 다보시고 제행실을 아십니다
-제가혀를 놀리어서 말할지 않더라도 주님께선 미리살펴 제가할말 아십니다
주님께선 동서남북 둘러싸서 막으시고 주님께선 손을엮어 안수하여 주십니다
-이깨달을 제게너무 신기하고 놀라워서 저는감히 축량조차 엄두내지 못합니다
주님께선 제벧속에 오장육부 만드시고 제가태중 있을때에 사람형체 지으셨네
-신기하고 놀랍구나 내게생긴 이모든일 주님께서 하신일이 너무나도 놀랍다네
-이사실을 잘알기에 감사찬송 올립니다
은밀하고 신비롭게 저를지어 내셨으며 땅속깊은 곳을통해 저를빚어 내셨기에
이내몸을 주앞에선 숨길수가 없습니다
-제형체가 생기기전 주님이미 절보셨고 사는연한 정하기전 인생살이 시작전에
-생명책에 내이름을 일찌감치 올리셨네
우리주님 모든생각 어찌그리 깊은지요 우리주님 모든생각 어찌그리 넓은지요
-주님생각 세려해도 모래보다 더많아서 다세었다 생각해도 전혀셀수 없습니다

제2독서 빌립보서 1: 1-11 ... 윤동희 집사

*제3독서 누가복음 14: 25-33 ... 윤동희 집사

*응답찬송 『한국교회와 리마 예식서』의 ‘알렐루야’ ... 다 함께



찬송 저 장미꽃 위에 이슬 ... 샘터중창단

설교 토기장이의 손 ... 정용섭 목사

설교후기도 ... 설교자

찬송 426장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 다 함께

5

봉 헌 예 전

신앙고백 니케아신조 ... 다 함께

우리는 한 분이신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셔서 하늘과 땅, 그리고 세상의 보이고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모든 시간 이전에 성부에게서 나신 하나님의 외아들이십니다. 그분은 빛에서 나신 빛이시요,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으로서 지음 받지 않고 나셨으며, 성부와 본질이 같으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만물이 지음 받았습니 다. 그분은 우리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로부터 오시어,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형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묻히셨으나, 성서의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그분은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성령은 성부로부터 나오시어,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고,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이고 거룩하며,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 다. 우리는 죄를 용서하는 하나의 세례를 고백하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오고 있는 세상의 생명을 고대합니다. 아멘.

*헌금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1절 ... 다 함께

중보기도 ... 목사

주기도 ... 다 함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성 찬 예 전

성찬찬송 231장 (우리 다 같이 무릎 꿇고서) 2,3절 ... 다 함께

준비기원

집례자: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과 인간 노동의 열매로 이 빵을 주셨으니, 이 빵이 곧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해주십시오.
회중: 주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집례자: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포도넝쿨과 인간 노력의 열매로 이 포도주를 주셨으니 이 포도주가 영원히 하늘나라의 것이 되게 해주십시오.
회중: 주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집례자: 들판의 밀알이 변하여 빵이 되고, 포도밭의 포도송이가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우리 모두 성찬예식을 통해서 영적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회중: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기를! 아멘.

